

보도일시 (인터넷) 2023. 4. 11.(화) 11:00, 배포 2023. 4. 11.(화) 06:00
(지면) 2023. 4. 12.(수) 조간

봄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안전점검 강화

- 4월 12일(수) 14개 기관이 참여하는 '해양사고 인명피해 저감 협의체(TF) 회의' 개최
- 봄철 선박 통항량 증가 등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관리 이행실태 점검 및 개선사항 조치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봄철 해상활동 증가와 잦은 안개 등으로 인한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4월 12일(수) '해양사고 인명피해 저감 협의체(TF)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이 주재하고, 해양안전과 관련된 민·관·학·연 등 14개 기관*이 참석한다. 회의에서는 봄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기관별 안전관리 이행실태 현황을 점검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협력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국립수산과학원, 해양경찰청,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수협중앙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선장포럼, 한국해양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한국선급, 한국교통연구원

한편, 해양수산부는 구명설비 보급, 종사자 교육 확대, 해양안전 캠페인 실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매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2월에는 '2023년 해사안전시행계획'과 '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선박별(어선, 여객선, 레저선박 등), 사고 유형별(안전사고, 전복, 충돌 등)로 맞춤형 안전관리를 추진 중이다.

특히, 이용객이 많은 낚시어선, 레저선박, 연안여객선 등에 대해서는 민·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안전관리 이행실태를 철저히 점검(4~6월)한다. 또한, 해사안전감독관을 통해 대규모 인명·환경피해가 우려되는 여객선·위험물운반선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하는 등 현장 중심 안전관리를 통해 사고 발생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점검을 통해 발견된 개선사항은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점차 줄어들고* 2016년 이후 대형 여객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나, 최근 어선 전복사고를 비롯하여 해상에서의 인명사고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정부와 관계기관은 이번 봄철에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역량을 총동원하여 안전 관리에 힘써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 (2020년) 126명 → (2021년) 120명 → (2022년) 99명

담당 부서	해사안전국	책임자	과 장	최성용 (044-200-5810)
	해사안전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한승현 (044-200-5846)



□ 추진 개요

- 다발 인명사고의 근본원인 분석 및 제거를 위한 핵심(브랜드)과제 발굴·이행을 위한 민·관·학·연 합동 TF 구성*·운영('21.6~)

* 해경청, 수협 어선안전조업본부 등 일선 현장 안전업무 담당기관 참여 확대('22~)

□ 추진 경과

- ('21년) ①비상정지장치 보급을 통한 「양망기 끼임사고 예방」, ②팽창식 구명조끼 보급을 통한 「소형선박 해상추락사고 예방」
- ('22년) ①구명조끼 착용 생활화를 위한 「My Life Jacket 프로젝트」, ②바다내비 보급확대를 위한 「바다내비 앱 활성화」

□ 회의 일정

- (일시/장소) '23.4.12.(수) 14:00~15:00 / 해수부 대회의실
- (안건) 그간 이행대책 성과 분석, 올해 브랜드 과제 발굴, 해양사고 예방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협력 사항 논의 등
- (참석) 차관(주재), 해사안전국장, 소관부서 과장, 해경청,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수협 및 연구·교육기관 등 20여 명

< 참여 기관(부서) >

소속	기관(부서)명
해수부 (본부)	해사안전정책과, 해사안전관리과, 첨단해양교통관리팀, 수산자원정책과, 연안해운과, 해사산업기술과, 선원정책과, 원양산업과, 어선안전정책과, 소득복지과
해수부 (소속)	중앙해양안전심판원, 국립수산과학원
해경청	해양안전과
유관기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수협중앙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선장포럼, 한국해양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한국선급, 한국교통연구원